

그래 인제 선돌공이 선돌이가 뭐라구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제 말을 안 들으시며는 제가 바가지를 하나 띄워 놓을 테니 이거 가는 데루만 따라가시면은 인제 될 테니까, 그리해서 잘 가시라구.”

그래. 그러는데두 그걸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여서 그 인제 선돌목이라는데 거기다가 거기 시신을 두구 갖게(갓기에) 거기다 묻었지. [청중 : 그렇지요.] 게 거길 가 보면은 그 앞에서 뺨(배를) 타구 오면, 여기가 앞에서 콕 맥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인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리 돌아 나가는 강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앞에서 보면 그냥 콕 맥힌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길 가 보면은 물이 핏핑 도는데 배질을 잘못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그냥 [조사자 : 소용돌이요?] 응, 소용돌이가 있어서 헤어나질 못 하구 현다고 그랬는데, 게 그 사람 그 후에 그 사람 죽인 거를 임금님이 후회하구 그래 인제 거시기 했는데, 그 후서부텀 그 사람 죽인 날이 시월, 음력으루 시월 스무 날인데, 시월 스무 날인데 매년 그때는 그렇게 춤대요. 그래서 선돌이 추위라구 여기서는 그래저든. 시월 스무 날께 추운 날은 선돌이, '선돌이 추위' 한다구. 그래 인제 이 근년(가까운 해)에는 산소두 다 개축하구 거시기 해 가지구 매년 시월 스무 날이면은 이 지방 사람들이 가서 지사(제사)두 지내. 거시기 문화재에서 아마 보조두 조금 주나 봐. 그전에 아주 시월 스무 날께면 '선돌이 추위' 라구 으레 추웠드랬지. [조사자 : 예.] 그래 그전에는 그냥 그 뱃사공을 하인들만 했거든. 양반들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선돌이, 선돌이 그랬는데, 아 - 인제는 아주 비석에도 선돌공이라고 충신이라고. 그런 충신을 몰르구 거시기 했으니까 선돌공 이라구. 아주 비석에도 그렇게 써 있다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김포의 설화》, 김포문화원, 1999, pp. 240~241.)

4) 남한강의 민요

(1) 아라리의 시원과 종착

아리랑은 산과 강, 그리고 들이 만든 노래다. 이렇게 볼 때 <정선아리리>나 <영월아리리> · <인제아리랑> · <여주아리랑> · <양평아리랑>은 강이 만든 한강수타령의 시원이요 산촌아리랑과 강촌아리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정선아라리>의 종착지는 서울의 노들나루까지이다. <정선아라리>는 주로 뗏목꾼들이나 보부상 등에 의해 충청북도의 <중원아리랑>을 배태하게 하였고, 최종 전파의 귀착지를 노들나루에 두었다. 이는 때를 부리는 장소가 대개 송파나 마포가 아닌 노들나루였기 때문이다.

한강은 큰 가람었기에 물살이 세어 인명 피해가 많았다. 자연의 피해도 피해러니와 인패도 만만치 않았으니, <한강원가 漢江怨歌>에 대한 이규태의 글은 저간의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한강(漢江)을 오르 내리던 뗏꾼들에게 주교폐(舟橋幣)라는 것이 있었다. 임금의 도강(渡江)을 위해 임시로 주교(舟橋)를 만들 때는 이 근방은 아무도 얼씬할 수 없었다. 때 건, 곡식이건, 무엇이건 다 멀리 쫓아 버렸다. 이때 뗏꾼들은 한 푼의 ‘공가’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수폐(受幣)였기 때문에 그 아픈 심사를 원가(怨歌)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세종(世宗)조 때 능(陵) 참배 등으로 왕이 도강해야 할 때는 배다리(舟橋)를 놓는데 이때는 어떤 배든 징발을 당하였다. 왕실(王室)에서 강을 건널 때는 삼군장수(三軍將帥)가 이편 저편에서 열을 지어 서 있고, 각(角)과 북을 호응 취주(吹奏)하는 가운데 좌군(左軍)의 구운(九運)이 선행(先行)을 맡고, 중군(中軍)의 십칠운(十七運)이 그 뒤를 받치고, 그 뒤를 어가가 행차하였다. 그리고 우군(右軍)의 삼운(三運)이 후미(後尾)를 맡는 주교도강(舟橋渡江)을 하였다. 연산군(燕山君)은 시흥(始興) 청계산(淸溪山) 사냥에 말너댓 마리 건너 가는 데도 이 주교를 놓도록 하명하였던 것이다.

왕의 행차에는 대개 민간선(民間船) 8백여 척이 징발되었다. 이 주교를 완성시키는 데는 20여 일이 걸렸다. 그 동안 경(京)을 중심으로 한 한강(漢江)의 수운(水運)은 두절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 같은 주교폐(舟橋幣)로 인해 생겨난 <한강원가 漢江怨歌>이다.

강원도 뗏목장수
 뗏목 뺏기고 울고 가고
 전라도 알곡장수
 통배 뺏기고 울고 가면
 마포 객주 밭 뺏고 울고
 노나루 색주가 머리 잘라 판다 78)

주교폐(舟橋幣)가 얼마나 크고 심했는가를 익히 알게 해 준다. 세종은 주교폐의 뗏뗏

하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배다리는 어지럽다.”는 구실로 한강 건너기를 애써 피하곤 하였다.

세종이 붕어(崩御)하여 영릉(英陵)으로 이장될 때 주교를 놓고 한강을 건너 가는 도중 비가 내려 대련(大輦)이 흠뻑 젖어 버렸다. 어지러운 황천길에 죽어서까지 백성을 아끼시는 인자한 비라고 뱃사람들이 말했다.

이 가사 중 노나루는 다름 아닌 노량진나루를 뜻한다. 노량진나루 근처에는 광복 전 까지만 해도 배 만드는 곳이 있었고 아직도 조선왕조 후기의 비사를 아는 이들이 꽤나 있다.

강원도 뗏꾼들은 떼를 타고 오는 도중 이포나루나 목계나루의 주먹패나 들병장수·창녀들에게 돈을 뜯기면서 강을 내려온다.

• 정선의 뗏목소리

〈떼타는소리〉

황새여울 된꼬까리 떼 지워놓게
만지산 전산옥이 술판 차려놓게
미창아리랑 서창영월아 술한잔 부어라
물명주 돈지갑에 돈 쏟아진다

(가창자 : 최봉출, 남, 83세, 정선군 남면 무릉리 멀미아파트, 2001, 6.21)

〈뗏목노래〉

…… (전략) ……

한강변에다 떼를 대니 잡놈이 많아 무슨 잡놈이나
돈 뜯는 잡놈 그때 허시허시
우리 누구려나 십원짜리라면 백원짜리 십원이라
유통화 사실 적에 우리는 우리가 꼬실려나
시화연풍 국태이나 요런 동글동글한 나무타곤

(가창자 : 최종명, 남, 54세, 정선읍 덕송리 다래마을, 1997, 11.11)

〈영월가는소리(떼타는소리)〉

에 황새여울 된꼬까리야 떼 무사이 지웠네 에에에에
만지나 전산옥이는 술판 차려 놓아라

에 제남 문 제작은 앞사공이 하아아고오오
아가씨 중등 제작은 거 누가 하는가

(가창자 : 송만옥, 남, 1906년생, 정선군 북면 여량리 갈금마을, 1997, 11, 11)

• 춘천의 뗏목소리

〈뗏목아리랑〉

도깃거리 갈보야 어서 술 걸러라
귀내기 여울에 떼 내려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주게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있거라
소양강 배터이 하직이로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만 주소

(가창자 : 김상운, 남, 1917, 춘천시 신북읍 천전3리, 1994, 4, 17)

강은 풍요와 길조 등 여러 상징성을 안고 있지만 ‘부정’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 오기도 한다. 강이 여성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남성적인 의지를 꺾는 부정한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하이네(Heine, H.)의 노래집 ‘로렐라이’, 괴테(Goethe, J. W.)의 발라드 중의 ‘시페르’가 그것이다.

산촌을 벗어나 강촌의 물길 따라 뚝섬까지 내려가는 뗏군의 근원정서는 차안과 피안의 세계만큼이나 거리가 멀다.

인간적 욕망의 흐름이 강물처럼 일렁일 때면 때로는 늘 나무마다 기다리는 들병장수 아줌마도 그림고 일상을 일탈한 세계에 빠져보고 싶기도 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이포나루·목계나루는 들병장수들의 유혹이 대단한 장소였다고 한다. 나룻가의 낭만적 삶에 대한 연구가 실상 우리 민속학계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그러나 꼭 연구되어야 할 민속학계 과제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중국의 양자강 유역에는 뗏군이 내려 오면 뗏군을 위해 보름 내지 한 달 간 강가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양보해 주고 약식 부부계약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물론 돈을 빼내기 위한 생존전략이라 하겠지만 참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뗏군은 벌이나 그 규모가 작아 들병아줌마와의 사랑은 한탕 낭만쯤으로 끝나야 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다.”라고 미라보다리를 통해 아폴리네르(Apollinaire, G)가 읊었듯이 우리네 뗏군들도 잘 하면 고무신 켜레를 장만할 수 있었고, 못 하면 호된 외도의 뗏가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고향으로 도라 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인제 뗏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뗏길 곳곳의 험난한 못과 여울, 다리밧들, 그리고 뗏군들의 애환과 종교적 심성 등을 잘 살필 수 있다.

〈인제 뗏목소리〉⁷⁹⁾

인제골 합강정 양소 앞에서 뿔 뗏소
 귀암 여덟 치올라 가니 뒷다리가 떨리네
 귀암 여덟 지나니 신라오가 당해
 신라오 당하니 겁이 푹뚫난다
 그 아래 푹떨어지니 비틀이가 당해
 비틀이 산고개 술뵈나라
 비틀에 푹떨어지니 황소못에 당해

황소못 앞에다 술뵈나라
 황소못 푹떨어지니 이막손이 당해
 이막손 앞에다 술뵈나라
 이막손으로 푹 떨어지니 까치여울이 당해
 까치여울 앞에다 술뵈나라
 까치여울은 푹 떨어지니 화리가 당하네
 화리 앞에다 술뵈나라
 모래야무지 같으면 우리가 당한다
 화리로 푹 떨어지니 재여울에 당해
 재여울에 새순무지 달리가자

79) 이창식, 《뗏목 관련 민요의 실상과 활성화 방안》, 《한국민요학》 8집, 민요학회, 2000, pp. 182~183

재여울을 뚝 떨어지니 배소귀리가 당해
 배소귀리 뚝 떨어지니 송산파리가 나온다
 송산파리에 뚝 떨어지니 거무여울이 나오네
 거무여울 그 아래는 개여울이 나온다
 송산파리여 다 지내가니 어디메나 하니
 춘천에 우두구하고 아우구가 나온다
 우두구하고 밑에는 어디가 나오나
 뒤통루 앞에야 모새여울 나온다
 모새여울 뚝 떨어지니 소양강 다리밑이요
 소양강 다리밑에는 붕어여울이 나온다
 소양강 아래서 절별을 하니
 돌아놓고 생각하니 황새여울 무서워
 황새여울 뚝 떨어지니 차돌맹이가 무서워
 차돌맹이가 뚝 떨어지니 양수리 다리빨이야 정말 무서워
 양수리 다리빨 밑을 떨어지니 석정바우로다
 석정바우를 뚝 떨어지니 어디가 당해
 우미네 광나루 다리빨을 뚝 떨어지니
 그 마을에 내려가니 천양산양소라
 그 소를 다 지내니 어디메가 당도하나
 뚝섬을 들어가니 마지막이로다

물길 따라 가는 길이라지만 <정선아라리> 가락처럼 가사 위에 붙이는 후렴은 사뭇 달리 표현되고 있다. <정선아라리> 후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고개고개로) 넘어간다

라고 표현하여 유유자적한 소리로 넘쳐난다. 물론 <인제아리랑>에도 이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만 <인제아리랑>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라고 노래하여 벌써부터 물길의 험난한 정황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 이때의 ‘쓰리쓰리’는 험난하고 쓰라린 물길의 역정을 암유하고 있다.

합강정 양소에서 출발하여, 귀암 - 신라오 - 비틀이 - 황소못 - 이막손 - 까치여울 - 화리 - 재여울 - 배소귀리 - 송산파리 - 거물여울 - 우두구 - 아우구 - 뒤뚜루 - 소양강 다리밑 - 황새여울 - 차돌맹이 - 양수리 다리빨 - 석정바우 - 광나루 다리빨 - 천양산 양소 - 뚝섬에 이르면 뗏목질이 일단 끝난다.

서울까지 가는 도중 비틀이 산고개에 술 부어 놓고 산치성을 드려야 했고, 황소못과 이막손, 까치여울, 화리에서 용왕제를 지냈음을 내용상 알 수 있다.

술을 부어 놓고 산치성과 용신제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 이곳에서 변고가 생겼거나 영검한 산신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용신과 산신 숭배사상을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선아라리〉가 ‘산촌아리랑’ 이라면 〈인제아리랑〉은 ‘강촌아리랑’ 이라는 점이 상호 준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아라리의 창법과 현장

강의 속성은 굽이쳐 흐르는 데 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남한강 민요의 역사도 수 세기를 걸쳐 변화와 굴절을 계속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원도 민요’ 하면 동강과 서강의 두 줄기 강 문화가 만들어 놓은 ‘아라리’를 연상하게 된다.

우리 민족은 동쪽을 남성으로 서쪽은 여성으로 상징하여 삶의 체계나 놀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강은 남성적인 강이요, 서강은 여성적인 강의 이미지로 다가오게 된다. 동강은 흔히 물길이 험하여 숫강, 곧 신랑에 비유하고, 서강은 암강, 곧, 신부에 비유하기도 한다. 물굽이의 꺾임과 휘어짐에 있어서는 동강보다 서강이 훨씬 사납지만 흘러가는 웅장함은 가히 동강이 남성적이다.

서강은 윗줄기인 영월 주천강과 평창강을 에돌아 흘러 온다. 본디 주천강은 영월 수주면과 주천면을 품에 안듯 에돌아 돌면 웅정리에서 평창강과 만나고 서강과 한몸이 된다. 또 평창강은 주천면 판운리를 가로 질러서며 웅정리를 또아리처럼 휘돌아 주천

강과 몸을 섞은 뒤 비로소 서강이 된다. 이렇게 웅정리에서 합수된 물길은 다시 동남 쪽으로 길을 틀어 청령포를 감아안듯 흘러 이윽고 하송리에서 동강을 만나 남한강이라는 큰 가람을 이루게 된다.

한강은 크게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뉜다. 이곳에서는 충청북도까지 뻗어 내려간 아라리 문화의 전파과정과 아라리조의 목(目)과 성(聲), 그리고 강 문화와 아라리와의 접변현상(接變現象)과 굴절현상(屈折現象) 등을 추적해 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살핀 아라리조의 실체를 살펴 볼까 한다.

신라시대 가집(歌集)인 《삼대목 三代目》은 이름만 전할 뿐 가집 속의 가사는 물론 이려니와 '목(目)'이라는 단어조차도 학계에서 구명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목'에 관심이 많아 고 장사훈 선생께 여쭙 본 일도 있었지만 국악계에서도 해명되지 않았노라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우견(愚見)으로는 '목(目)'은 한문을 차용한 것일 뿐 감정이나 정서가 흐르는 모습(樣態)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한다.

필자 소장본인 죽포(竹圃)의 《시조창법교본 時調唱法敎本》에 보면 분노목, 구성목, 탄목, 조림목, 허기목, 기목, 호령목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을 '칠종공성목(七種功聲目)'이라 하였다.⁸⁰⁾ 시조를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하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하는 시조 창법의 상황인식을 지목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강원도 민요도 상황에 따른 민요, 상황에 따른 개사(改詞), 상황에 따른 굴절(屈折)의 역사가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올라가 아라리 역사의 효시를 잡는다면 삼국시대 박혁거세 부인 '알령부인설'이나 그 이전의 '낙랑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알령부인설'부터 잡는다면 치더라도 아라리의 굴절사는 삼국시대까지 소급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시적인 면으로 볼 때 크게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근·현대라고 하는 네 차례의 굴절사를 겪었다 할 것이다.

'신'을 의미하던 '알(아리)'이 시대를 격하면서 위대한 '치자(治者)'를 의미하기도 했고, 인격을 뛰어 넘어 한국인이 원했던 '이상향'을 뜻하기도 했으며, 개인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는 '부직'의 의미로 변하기도 했고, 노래마다 첨가하는 후렴구의 대용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필자가 영월에서 만난 고 엄기복 옹의 아라리관을 <영월읍 설화>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80) 竹圃, 《時調唱法敎本》, 丁酉 八月.

• 곱감 대접 받고 부른 아라리(정선아라리 창법)

저 영월 하동을 가면 그 영감이 권 영감이라. 외로와 그 택호가 상촌인데 권상촌, 권상촌 영감이, 이 영감이 참, 인제 참 우스운 영감인데 그래 저 영감이 저 영남으로 소천 저 인제 예, 영주 일러루 인제 늘 택에짐을 많이 저요. 택에짐을 많이 지는데 [조사자 : 뭐라고요?] 택에짐. 짐을 장사꾼들이 이제 짐을 지고 장에 장까지 내다 주고 이래는 영감인데 [조사자 :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택에라고 그래. 택에 지고 간다, 택에. [조사자 : 택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해지기 전에 지고 가서 이제 돈 받고 이제 저다 주고 이래는데 [조사자 : 그걸 택에짐?] 택에꾼이라고. [조사자 : 택에꾼.] 이 분이 모룩이라는 델, 데 가서 떡 자게 된다. 여기서 인제 채 넘어 가면 고돌령이니 여길 넘어 가면 자게 되는데 아, 그 친구들에게 장사꾼들이 수십 명이 모이고 이래니 아, 저 영감이 아주 '정선 아라리' (아리랑)를 잘 한다고 그러니 그 영감 아라리 좀 들어 보자구.

“자, 영감 아라리를 좀 하시오.”

하니 생전 하는가 안 하지. 안 하니 아,

“그래면 곱감(곱감)을 한 접 사줄 테니 아라리를 좀 하라.”고.

“그럼 사 주면 하지.”

곱감을 한 접 사서 이제 한 뒤(두) 꼬지 주고 츠(지) 농고(나누어) 먹고 이래구 한 번 하라 이래니 곱감 먹구 인제 아라리를 내 놓내. 내 논(농은) 기 고만 얼마나 잘 하는지 듣기가 싫어서 고만 하란다, 고만.

“고만 하게, 고만 하게.”

자꾸 내 놓아(일동 : 웃음) 자꾸 내 놓아. 자꾸 내 놓으니 한 사람이,

“아, 이제 곱감을 한 접 사줄 게이니 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 곱감을 한 접 사준다고 한 접 사주고 또 하지 말라고 한 접 사주고 이런 일이 있어. 이 참, 우습지. 입이 빠죽한 기 없어서 그 참 넘어(남의) 놀림감이 되구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아라리로 여 정선 가서 나도 좀 그건 젊어서 봤는데 참 잘하는 이가 있고, 요새 여 지금 서울에서 뭐, 정선 강원도 아라리니 뭐니 나오는 거, 그 성대는 좋아요, 성대는 좋으나 가사가 그전에 이 혼몽 정선 지방 하는 그 분들과 아라리가 달라요. [조사자 : 그 좀 해 주세요, 지금 잠깐만.] 그래, 정선 아라리 혼몽으로 하는 걸 보면 그 참 슬프고 또 신음 성조가 있고 이제 탁성이 있고 또 인제 예, 애원성이 있고 슬피하는 것이 또 신음성으로 남이 듣기 좋게 또 탁성으로 또 길게 하는 것 [조사자 : 탄성으로, 그건 어떻게 달라요?] 탁성은 인제 참 장난꾼에 오입쟁이 소리로 이기 나오고, 신음성이라는 거는 보통 참 이제 남 듣기도 시원하게 이런 것도 있고, 애원성이라는 건 슬프게 하는 것이 인제 신음성인데 이 '정선 아라리', '정선 아라리' 도 이 들어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 요새, 요새 하는 거 보면 참 잘 해요. 성대는 좋단 말이야. 그 뭐 잘 하는 때도 있고 정

선서 나오는 것 보면 그 참 어떤 건 참, 제대로 그런대로 잘 하는 때가 많이 있지. [조사자 : 그러면 아무 대목이나 좀 해 주세요.] 예해, 자,

[노래] 이십영천에 곰새새리는
 곳곳이 나고
 모춘삼월 호시절은
 피리소리로 가네
 노다가 노랑묵새는
 내가 담당하지
 우남한 열두 절답이
 좋기만 하네

[말로] 이게 '정선 아라리' 인데, 인제는 나이 많고 숨이 차고 해서 이렇게 인제 됩니다.

[조사자 : 지금 할아버지가 해 주신 게 신음성이예요, 애원성이예요?]

이게 애원성이지.

[조사자 : 그러면 저 신음성으로 좀 해 주세요.]

[노래] 만경창파에 둥둥뜨는 저배야
 거기잠깐 머물러라 말물어보자

[말로] 이게 신음성이고 요 먼저 한 것은 애원성 이게 다음에는 탁성이라는 거는 이진 술 먹고 ...

[노래] 노자노자 늙시다 젊어서 노자
 늙구서 병이들면 못노나니

[말로] 이기 인제 보통 인제 탁성이라,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그 인제 그 고조가 요새 하는 건 자꾸 늘어지지만 늘어지고 성대를 이걸 인제 성대만 자꾸 이제 울리지, 곡이라는 것이 지끔도(지금도) 곡대로 하기는 하나 지금 인제 그전 혼몽과 이기 조금 다르다 이 말이야.

[조사자 : 혼몽이 뭐예요?]

혼몽은 정선 가면 정선 참, 원 지방 본 조종에 아라리 제와 요새 조금 다르더구만.

[노래] 신 장산 아라리는 구정선조로

[말로] 아주, 이제 슬프게 이게 거기 인제 궁굴마치 되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조사자 ; 그런 노래 한 번 해 주세요.]

[노래] 신갈보 호리 내기가 망맞었네

[말로] 이러게(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신갈보 호리기가 망맞었단 말이야.

[조사자 : 신갈보 호리기가 망맞었다, 맞었다가 무슨 뜻이에요?]

신갈보 호리기가 마치 맞다라는 말이야.

[조사자 : 됐어요. 계속 그런 것 불러 주세요.]

[노래] 당신도 양심이 있거든

내얼굴을 좀봐요

포근포근 하든 얼굴이

철골이 됐네

[조사자 : 철골이 뭐예요?]

철골이 '뼈가 녹는다.'는 말이야.

[노래] 유정무정은 사귄 탓이요

정들고 못하는 것은

너하구 나하구라

[조사자 : 계속해서 가사 같은 것 말이죠, 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미친 영감이라 하겠다. 우리도 젊어서 곧 잘 뭐, 이래 놀았는데.

[노래] 한치 뒷동산 곤드레딱죽이

남에 맛만 같으면

고것만 뜯어 먹어도

올봄 살어나지

[이제 고만 하자 했으나 조사자가 자꾸 졸라서 다시 노래를 시작한다.]

[노래] 강산은 불변 재봉춘이요(江山不變再逢春)

임은 일간 무소식이다

[조사자 : 아, 한문 노래 계속해 주세요.]

[노래] 강초일일이 환추생하니(江草日日喚愁生) 81)

강물만 푸르러도
그대 생각이라

모른 동창에 신작로 난거는
천기 운기로 낳건만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인건
천생연분 아니냐

모른 동창 그 아주 그 산중에 험하기 짝이 없는데, 신작로 난 거는 천지운기 신작로 날 때가 아니다. 모른 동창이라는 데가 정선에 있네. 신작로 난 거는 천지운기로 낳지만, 오늘 저녁 친구들이 모인 것은 천생연분이야.

(덕포 10리, 1983. 5. 25, 엄기복, 남. · 73) 82)

상기 제보자 엄기복 옹은 필자가 강원도에서 만난 최고 양질의 이야기를 들려 준 설화 구연자다. 오후 2시경 방문하여 다음날 3시까지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려 주었던 분이다. 구연자보다 조사자의 권유로 후일을 기약하고 그분 댁을 나왔으나 그것이 마지막일 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엄 옹 자신이 자랑스레 언급해 주었듯이 젊었을 때는 정선에서 하룻밤에 두 여인을 유혹하여 사랑을 해 보았다는 풍류인이었다. 한마디로 팔도를 돌아다닌 오입장이었기에 그토록 많은 무형문화재급 설화를 구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제시해 준 '신음성' 이나 '애원성', '탁성' 이라는 '성' 이라는 용어도 기생방에서 좇어들은 말이라고 한다.

아라리에서의 '성' 이란 말은 강원도 향토색이 깃든 용어로 시조창에서의 '목' 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점을 아라리 목과 시조창에서 찾게 된다.

죽포(竹圃)는 시조창은 정음(正音)을 요하기 때문에 웅심화평(雄深和平)하여 황종일동(黃鐘一動)으로 해야 하며, 크게 꺼리는 성(聲) 7가지를 '대기칠성(大忌七聲)' 이라 하여, 겁성(怯聲), 비성(鼻聲), 애원성(哀怨聲), 결령성(結鈴聲 · 노랑목), 요령성(撓鈴聲 · 물내자슴목), 아성(兒聲), 독서성(讀書聲)을 들었다.

애원성을 일러 “궁성(宮聲)에서 실(失)청 되어 간녀(姦女)의 슬픈 소리 같음.”이라고 해석하였는 바 현존 아라리조의 맛이 그것이 아닌가 한다. 엄 옹이 말한 신음성이란

81) 杜律의 詩.

82) 김선봉, 《한국구비문학대계》(2-8) 강원도 영월군면 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 810~814

겹성(怯聲)에 해당하는데 죽포는 다음과 같이 겹성을 해석하고 있다.

“한기(寒氣)가 나고 겹이 나서 떠는 소리.”

그렇다고 본다면 시조창에서 금기시했던 애원성과 겹성, 곧 신음성이 주로아라리에 원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아라리의 성목이 <여주아리랑>이나 <양평아리랑> 및 <중원아리랑>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3) 아라리의 접변과 굴절

충청북도에는 <중원성·중원아리랑>이라는 강원도 아라리계의 민요가 있다. ‘성(聲)’으로 볼 때 이 민요는 아라리와의 접변현상에 의한 ‘굴절민요’에 속한다.

마치 입사광선이 어느 경계면에서 굴절되어 굴절광선을 만들 듯이 도와 도 사이 또는 강과 강 사이에서 굴절민요가 발생한다.

강 문화의 연결 고리는 ‘나루’다. 나루를 통해 문화의 수수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충북 중원문화권과 강원도 아라리문화권의 연결 고리는 목계(木溪)나루가 담당하고 있다.

목계나루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에 자리하고 있다. 목계(木溪)의 옛 지명은 ‘상계’였는데 그 뒤 ‘오목계’였다가 지금의 목계로 바뀌었다.

목계나루(木溪津)는 우리나라 5대 하항(河港)의 하나이다. 특히 영월과 제천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중원군에서는 가장 큰 동네였다. 충주시(舊 중원군) 엄정면(嚴政面) 목계리에서 가금면(可金面) 가흥리(可興里)로 건너 양성면(仰城面)을 지나 경기도 장호원(長湖院)으로 이어지던 나루터로, 과거에는 세미(稅米)를 운반하던 가흥창을 끼고 내륙 하항으로 성황을 이루었으나, 내륙교통의 발달 및 다리의 가설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6·25 때만 해도 큰 항구도시였으나, 6·25 폭격과 그 후 홍수, 다리 가설 등으로 인하여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엄정면의 주요 농산물로는 쌀·보리·콩 기타 잡곡이 생산되며, 특용작물로 깨·담배를 많이 경작한다.

목계나루의 교역 물자는 서울에서 새우젓·조기·소금·미역·고등어·설탕·광목 등이 들어 오고, 목계에서는 쌀·보리·팥·콩·조·담배·고추·배·나무 등이 나갔다. 새우젓과 소금은 마포에서 싣고 왔으며, 한편 목계에서 곡물과 담배 등을 실은 배는 서울 서빙고로 가고, 나무는 영월과 충주에서 목계로 들어오며, 떼(뗏목)에 실어

한 번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간히니까 ‘가칠목’이라고 했다고 한다. 뗏목이 일단 내려오면 노량진 가칠목에 와 닿고 물건은 서울로 가져 가게 된다. 마포의 새우젓배를 만든 이들도 이 마을 사람들이었다.

뗏목꾼들은 시루떡을 해 놓고 뗏목 위에서 용왕제를 지냈으며, 이내 물건을 하역하고 나서 떼 풀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노들 용왕당 옆 가칠목 앞강에는 나루터가 있고 빨래터가 있었다. 일단 뗏목 위의 물건을 다 부리고 나서는 강 위에 떠 있는 뗏목을 풀어서 땅 위로 올려 놓아야만 한다. 이때 편을 짜서 칩으로 감아 놓은 뗏목의 통나무를 하나씩 풀어 가지고 용왕당 옆에 있는 큰 나무까지 메고서 달리는 경주를 하였다. 그야말로 한국적 육상경기의 원초적 모습인 셈이다.

삿대는 도토리나무로 만들고 뗏목은 소나무나 낙엽송을 재료로 쓰기도 하나 주로 참나무로 만드는 게 원칙이다.

원래 한국의 육상경기는 서낭당에서 발생하였다. 최근까지의 민속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서낭당을 돈다든가 서낭수목을 도는 경기 내용을 간혹 발견할 수 있으나, 장애물 경기의 형식을 갖추고 힘을 요구하는 육상경기는 이곳 노량진에서 처음 발견된 셈이다. 과거에 뗏목을 풀어 달린 거리는 약 100m 정도가 되었는데 진흙 밭을 뛰었다고 이곳 김대길은 증언하였다. 또한 용왕당 옆에서 벌어진 달리기 경주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⁸³⁾

노들나루를 중심으로 민요를 조사해 보았으나 중원아리랑과 같은 굴절민요는 찾을 길 없었다.

떼를 풀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고무신 켜레나 사 가지고 귀향해야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노래방(풍류방)을 전전할 신세가 못 된다. 귀착지로 향해해 오면서 목계·이포 등 곳곳의 들병장수들에게 털릴 대로 다 털려 신발 몇 켜레 건지기도 어려운 적이 많았다. 더군다나 〈노들강변〉 등 경기민요가 판을 치는 노들나루 민요권을 정선 아라리가 굴절민요화할 잠재력은 이미 쇠잔한 상태다.

(4) 아라리 발생과 상황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란 말이 나온다.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물의 기(氣)는 산의 기보다 강하다. 그리하여 물은 항시 산을 에돌아 휘

83) 김선봉·김이숙, 《동작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1994, pp. 920~921.

감으며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의 집합이 강이지만 땅과 같이 모태의 구실을 담당해 왔으며 이 속에서 아라리는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가 된 곳의 물살은 항상 뗏꾼들을 괴롭혔으니, 영월의 고 박영국 옹이 제공한 옛이야기를 들어보자.

• 오만냥바위 전설

그 금보연이가 동서가 합숙 거리에 도착했을 때, 머리 풀어 산발한 유령이 머리 속을 스쳐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미처 못 차리는 동안에 물살을 헤치고 가니까, 바로 건너가면서 그 영월읍 갈교리 강 건너 마을에 돌푼진 봉우리가 있어요. 돌푼진 응, 산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부닥쳤어요. 그래 부닥치니까 앞서던 게 부닥치니까 뒤에 또 부닥치고, 부닥치고, 부닥치고 해서 배가 내려간 다섯 척이 파산돼. 파산을 해 버렸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그때 그 사람들은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헤엄을 치고 나와서, 물건을 모두 망가졌긴했지만 사람들은 상하진 않았다. 그래서 오만냥바위라고 그린다.

그 이유는, 배 한 척에 그때 담배 값 조성진이 이런 거 합쳐서 만 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배 다섯 척이 망가졌으니까 오만 냥을 소화할 바위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만냥바위라고 그립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이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발전소가 들어섰죠. 지금 대단히 컸지만 그러한 이유가 없었죠. 전설인데 그것은 지금 한 칠십 년 전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조사자 : 아,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를 또 지내고 그립니다. 그 뒤에 바꿨죠. 근데, 그런 전설만 제가 알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소문이 금봉이가 그렇죠. 금봉이라는 곳이 매년 사고가 나요. 거의 예전에 거기서 익사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는 처녀나 무슨 귀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조심들 하죠. 그 매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영흥 5리, 1983. 5. 15, 박영국, 남·67.)⁸⁴⁾

이렇게 뗏목꾼들은 <오만냥바위> 전설을 만들며 살았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여 용왕제와 성황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물 우횿 沙工과 물 알엿 沙工놈들이 三四月 田稅大同 실나 갈제
一千石 싯는 大中船을 작위 다하 쑤여내야 三色實果 멀이 ㄱ즌짓 ㄱ초와 필이 巫鼓를 동동
침여 五江 城隍之神과 南海龍王之神예 손 ㄱ초와 告祀호예 全羅道 | 라 慶尙道 | 라 蔚山밧아
羅州밧아 七山밧아 휘도라 安興목이라 孫覿목 江華목 감돌아 들예 平盤에 물담듯시 萬頃
滄波를 가는듯 돌라요게 고스레 고스레 所望일게 호오쇼셔
어어라 어어라 저어 어어라 비씩여라 至菊叢 南無阿彌陀佛

84) 김선봉, 《한국구비문학대계》 (2-8) 강원도 영월군편 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 274~275

이상의 사설시조의 내용대로 흥겨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소리에도 '나무아미타 불'이라는 기원문을 잊지 않고 있었다.

앞에서 필자는 멀리 정선·영월·평창으로부터 화천·춘천의 아라리가 충청북도 중원아리랑을 배태하게 한 동인(動因)임을 민속적 상황 중심으로 논증해 보았고, 필자의 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아라리의 목(目)을 구명해 보기도 하였다.

중원아리랑은 강원도 원형아라리의 방계형으로 이를 명명하여 '굴절민요'라 하였다. 굴절민요의 초기단계는 한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이 이어지는 접변지역, 곧 나루를 통해 발생한다.

그것도 축제라는 바람을 타고 더욱 활성화 되고 가속화 된다. 충청북도의 중원 아리랑은 분명 목계나루를 거쳐 그 일대의 들과 산으로 퍼져 갔던 것이다.

또 한가지는 아라리의 목(聲)에 대한 고찰이다. 강원도의 정선·화천·영월 등지에서 가창되고 있는 아라리의 목에 대한 말을 어느 누구도 언급한 바 없다.

기생방을 드나 들던 풍류 설화구연자 고 엄기복 옹은 '애원성', '신음성', '탁성'을 들었다. 강원도 아라리에서는 시조창에서 금기시했던 '대기칠성(大忌七聲)'에 해당하는 '애원성'과 '신음성'을 가창에 쓰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강원도 요언(謠諺)에,

인제 남박장사 양구 말꾼(馬夫)
화천 뗏군 춘천 월급쟁이
홍천 토박장사 정선 갈보
영월 담배장사 양양 머리치 장사

라는 노래가 전하는데 어째서 '정선 갈보'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5) 한강의 민요

한강은 옛부터 주요한 교통로로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강과 나룻배에 관련된 민요가 널리 전해 오고 있다.

• 앞산 타령

나 너 — 니 나 노 에 — 에히에히 에헤야아
 에 — 어히어 어히 이어 허루 산이로구나
 과천 관악산 염불암은 연주대(戀主臺)요
 도봉(道峰) 불성(佛性) 삼막(三幕)으로 돌아든다
 에 — 어디히 이에 어히에헤에야
 에 — 히 에히 이어 어루 산이로구나
 단산봉황(丹山鳳凰)은 죽실(竹實)을 물고
 벽오동(碧梧桐) 속으로 넘나든다
 경상도 태백산은 상주(尙州) 낙동강이 둘러 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하동(河東)이라
 섬진강수(蟾津江水)로만 다 둘러 있다
 동불암(東佛岩) 서진관(西津寬) 남삼막(南三幕)은 북승가(北僧伽)요
 도봉(道峯) 망월(望月) 천축사(天竺寺)라
 해외소상강(海外瀟湘江) 일천리 너른 물에
 굽이 출렁 동정호(洞庭湖)로만 다 둘러 있다
 성(聖)절 덕(德)절 학림암(鶴林庵)을 구경하고
 화계사(華溪寺)로만 돌아든다
 탁자 앞에 앉은 노승 팔대장삼(長衫)을 펼쳐입고
 고부랑 곱빱 염불만 한다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데
 명기(明氣)를 빌려라 나도 보자
 너 오는 길에 약수삼천리(藥水三千里)와 만리장성(萬里長城)이 들렀더냐
 잠총(蠶叢) 어부후(魚兜後)에 촉도지난(蜀道之難)이 가리웠더냐
 팔도(八道)로 돌아 유산객(遊山客)이요
 여덟도(道) 명산(名山)이 경기(京畿) 삼각산(三角山)이라
 삼각산(三角山) 제일봉(第一峯)에 봉황(鳳凰)이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물에 용마(龍馬) 하도(河圖) 낭단 말가

선소리는 처음부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해지고 그 다음 소리를 받는 여러 사람으로
 갈린다. 어느 때고 소리를 메기는 것은 혼자며 받는 사람은 여럿이다. 그리고 후렴은
 다 함께 지른다.

여럿의 제창(齊唱)은 노래만 맞으면 되지만 요(要)는 소리를 주는 사람의 재주와 용모

와 나이였다. 여인이 없던 시절에는 얼굴 예쁜 소녀들이 소리를 주었다. 주름 잡힌 얼굴보다는 미목수려(眉目秀麗)한 소년이 한결 환하다. 그러나 역시 나이는 어려도 남자는 남자다.

〈앞산타령〉 사설에 있어서 과천(果川)을 노래할 적에는 과자(果字)를 떼어 버리고 그냥 ‘천관악산(川冠岳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2절의 받는 데서 ‘경상도 태백산은 상주(尙州) 낙동강’을 전에는 ‘떨어진 강’이라고 했다. 이것은 낙수 낙(洛)을 떨어질 낙(落)으로 잘못 안 데서 유인(由因)한 것이다. 또 “전라도 지리산은 하동(河東)이라 섬진강수(蟾津江水)로만 다 돌렸다.” 하는 것을 예전에는 ‘엮어진 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섬진강을 두치강(斗致江)이라고도 하므로 두치는 사투리로 뒤치라고 하나까 뒤친다. 엮어졌다, 자빠졌다, 이렇게 어김말로 한 데서 유인한 것이다.

가사와 사설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하나하나 고치고 바로잡아 이제는 추호도 손색 없는 사설로 되어 있다.

서울을 두고 앞에 있는 여러 산을 부른 것을 〈앞산 타령〉 그리고 그 뒤에 둘러 있는 여러 산을 부른 것이 곧 〈뒷산 타령〉이다. 〈앞산 타령〉은 먼저 “……나 너 —니나노” 하고 그 후렴을 함께 부른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水上船) 타고서 에루화 뱃놀이 가잔다
아이하 에헤요 에헤요 어허야
일사함마 등계 디여라 내 사랑아
한강수야 네가 말을 하려마
눈물 둔 영웅이 몇몇 줄을 지은고
멀리 뵈는 관악산(冠岳山) 웅장도 하고
뚝단배 두서넛 에루화 한가도 하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뗏목 위에 노래도 에루화 처량도 하다
조요(照耀)한 월색(月色)은 강심(江心)에 어렸는데
술렁술렁 배 띄워라 에루화 달맞이 가잔다
앞강에 뜬 배는 낚시질 거루요
뒷강에 뜬 배는 임 실러 가는 배란다
푸른 물결에 두둥 뜬 저 백구(白鷗)
날과 같이도 에루화 외롭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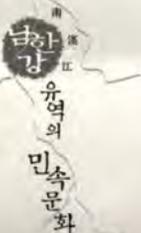
노들의 버들은 해마다 푸르는데
 한강을 지키던 임 지금은 어디 계신가
 양구(楊口) 화천(華川) 흐르는 물 소양정(昭陽亭)을 감돌아
 양수리(兩水里)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누나
 잔잔한 물결에 노 젓는 저 사공
 만단(萬端) 시름 잊고서 배만 저어 가누나
 낚시대 드리우고 즐고 있는 어옹(漁翁)은
 삼공불환차강산(三公不換此江山)은 이를 두고 이름인가
 정선(旌善) 영월(寧越) 지나서 단양(丹陽) 도담(島潭) 감돌아
 여주(驪州) 이천(利川) 광나루 압귀정(鴨歸亭)으로 흐르네
 노을진 저녁별 한강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悠悠自適) 즐기니 이도 멋진 흥취일세
 사풍세우(斜風細雨) 저문 날 저문 줄 모르고
 낚시대 드리우고 근들근들 즐고 있네
 강기슭 찬바람 몸에 스며드는데
 정든 임 그리며 강물만 보고 있누나

이 <한강수타령>은 서울 지방에서 성창하는 민요의 하나로서 앉아서 부르는 좌창(坐唱·앉은 소리)보다 서서 부르는 입창(立唱)에 속하는 노래이다. <한강수타령>은 한강을 노래한 것인데 한강은 중부 태백산맥에서 강원·충북·경기도를 동서로 흘러 황해로 들어가는 전장 514km의 한국 제4위의 강이다. 유역 면적 26,270km², 남·북한강의 2대류, 남한강은 강원도 남부, 태백산 북쪽 대덕산(大德山) 북쪽에서 발원, 송천(松川)·평창강(平昌江)이 합류, 단양·영월을 거쳐 충주에서 달천이 합류, 북서류(北西流), 여주(驪州), 양평(楊平)을 거쳐 양주(楊洲)에서 북한강과 합류, 개풍군(開豐郡)에서 임진강과 합류, 강화만(江華灣)으로 흐른다.

북한강은 강원도 금강산 북쪽에서 발원, 남류(南流)의 금성천(金城川)·금강천을 합류, 춘천에서 소양강이 합류, 서류(西流), 양주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수량(水量)이 풍부하고 유역에 춘천·영월·여주 등 분지를 이루며 하류에 김포평야를 형성하여 국내 줄지의 곡창을 이룬다. 가항거리 330km 관개 지역과 가항거리는 전국 제2위다. 특히 이태조의 한양천도 이래 수도의 수호강(守護江)의 역할을 했다.

이 <한강수타령>은 한강의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읊고 한강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 뱃놀이를 하며 자연을 음미하는 선유(船遊)도 있고, 한강이 변함은 없지만 인심세태(人心世態)는 변했



다고 원망하여 한강의 한스러움을 엮은 사설(辭說)도 있다. 장단은 굵거리 박자이다.

• 한강수타령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에루화
뱃놀이 가잔다
아아하 에헤요
에헤요 어허야
얼사함마 둥게 디여라
내 사랑아
한강수야 네가 말을 하렴아
눈물든 영웅이 몇몇줄을 지은고
멀리 뵈는 관악산
웅장도 하고
뚝단배 두서넛
에루화 한가도 하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뗏목 위의 노래도
에루화 처량도 하다
조용한 월색은
강심에 어렸는데
슬렁슬렁 배 띄어라
에루화 달맞이 가잔다

앞강에 뜬 배는
낚시질 거루요
뒷강에 뜬 배가
임실러 가는 배란다

푸른 물결에
두둥 뜬 저 백구

날과 같이도
에루화 외롭구나

노들의 버들은
해마다 푸르는데
한강을 지키던 임
지금은 어디 계신가
양구하천 흐르는 물
소양정을 감돌아
양수리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노라

잔잔한 물결에
노 젓는 저 사공
만단시름 잊고서
배만 저어 가노라

낚시대 드리우고
줄고 있는 어용은
삼공불환 저강산은
이를 두고 이름인가
정선 영월 지나서
단양 도담 감돌아
여주 이천 광나루
압구정으로 흐르네

노을진 저녁빛
한강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 즐기니
이도 멋진 흥취일세
사공세우 저문날
날저문줄 모르고

낙숫대 드리우고
근들근들 졸고 있네

강기슭 찬바람
몸에 스며드는데
정든 님 그리며
강물만 보고 있노라

〈한강수타령 漢江水打令〉은 한반도의 중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 질러 흐르는 한강을 노래한 민요이다. 한강은 수량이 풍부해서 일대의 농업지대에 물을 공급해 주었고, 교통로 역할을 했으며, 민족사의 많은 애환을 지니고 있어 민요로까지 등장했다.

한강의 풍경과 흥취, 그리고 지은이의 심정을 노래한 이 민요는 양구·소양정·양수리를 거쳐 노들나루에 이르는 북한강쪽의 조운로(漕運路)와 정선·영월·단양·도담·여주·이천을 거쳐 압정으로 들어 오는 남한강쪽의 조운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지난 날 한강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민요로 뗏목에 짐을 싣고 양평에서 노량진으로 들어오는 뗏노래로 〈뗏목노래〉가 있다.

• 뗏목노래

에 헤에 ~ 헤에 ~ 에 ~
뗏목이여 ~ 닻을서라
용산강은 노를건너 ~
약사보살 비칠서라
뗏목이여 ~ 뗏목이여
어기어차 어기어차
뗏목이여 해가 넘어간다 ~
흙이 머리에 반칠세라
칠성이여 칠성이여
칠성단을 어보세 ~
돌머리를 돌려라
노 ~ 자 노 ~ 자
뒷머리를 틀어라

서넛바다 빛이 나고나
서울한강 닿고보니
큰애기 네로구나
금수강산이 좋을시고
금수강산이 좋을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대한동국
금명이가 문힐서라
차~차리 내려가자
노자꾸나 돌머리야
저기저 들어가니
양평군에 들어서니
바우를 돌어서 흘러가거라
바우가 받치면 파산된다.
돌~아 돌~아
부부장구가 돌아라
양산도자 도자기여
도자기 한쌍을 캐구보니
그만두구 돌아왔다
돌돌돌 돌아라
양~산 합일은
부부일신이 돌아왔네
우리 집이 우리 아가씨
죽은줄을 알건마는
너는 청춘이고
나는 백발
그렇게 죽은줄은
나는 몰라
죽었구나 죽었구나
노량진이 비쳤구나
내고장이 비쳤구나
어린 딸자식을 잘길렀나

어린 자식은 밥달래고
애비의 간장이 또 녹는다
에 ~ 루 돌돌돌 돌아라

- 제보자 : 곽정일 (남, 64.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993. 4. 5)

한편 노들강변은 노들이(露梁津)의 강변에 늘어 선 수양버들이 명물이어서 흔히 노래로 불리어졌다. 옛날 노들나루는 한강의 나루터 중에서 가장 사람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고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쉬고, 술 한 잔 하고 요기를 하기 때문에 주막이 늘어서 있었다고 전한다.

노들나루의 수양버들은 오가는 사람의 마음에 인상이 깊었으며 이곳을 통과해서 입경(入京)하여 행복과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과, 과거의 급제해서 의기양양하게 금의환향(錦衣還鄉)하는가 하면,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실의에 빠져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각양각색의 제 각기 사념(思念)을 안고 노들강변의 수양버들 밑을 지나갔을 것이다.

• 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동여 매어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흘러 가노라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밟은 자국
만고풍상 비바람에
몇번이나 지어갔다
에헤요 백사장도
못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만 가노라

노들강변 푸른 물
네가 무슨 망령으로
재자가인 아까운 몸
몇몇이나 데려갔나
에헤요 네가 진정
마음을 돌려서
이 세상 쌓인 한이나
두둥 신고서 가거라

경기민요의 하나인 이 노래는 신불출(申不出) 작사, 문호월(文湖月) 작곡의 신민요(新民謠)로 1930년대부터 널리 유행하였다. 장단은 세마치이고, 형식은 3절로 된 유절형식(有節型式)이다. 선율의 구성음은 편의상 서양음악의 계이름으로 표시한다면 '솔·라·도·레·미'로 된 5음 음계로 평조의 선법에 해당한다.⁸⁵⁾ 현재 이 곡은 무용곡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애조가 담백 들어 있어 이 세상 한(恨)을 흐르는 물에다 띄워 보내려는 심정을 읊고 있다. 신민요로 등장한 〈노들강변〉은 오랫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민요화하나 노래로 우리와 영원히 길이 남을 동작구의 민요이다.⁸⁶⁾ 이밖에 동작구의 민요로는 부녀요로서 〈베를가〉 등과 주로 잡가가 많이 불리고 있다. 한강변에서 채록한 민요는 다음과 같다.

• 노들강변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동여서 매어나볼까
에헤요 봄버들도
못잇을 이로다
흐르는 저기저물만
흘러흘러 가노라
노들강변 백사장
모래마다 밟은 자국
만고풍상 비바람에

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91.

86) 동작구, 《내고장 동작》, 1990, p. 147.

몇번이나 지어갔노
에해요 백사장도
못잊을 이로다
푸르른 저기저물만
흐들러서 가노라
노들강변 푸른물
내가 보고서 망령으로
재자가인 아까운 몸
몇몇이나 데려갔소
에해요 내가진정
먹을 돌려서 이세상
쌓인 한을 똥똥
실코서 가거라

- 제보자 : 전재봉 (남. 77세. 본동 강남노인정. 1993. 5. 1)

• 금강산 타령

천하명산 어디메뇨
천하명산 구경갈제
송악끼고 솟은산이
일만이천 봉오리가
구름같이 어렸으니
금강산이 분명코나
장안사를 구경하고
명정대에 다리쉬어
만군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노
바위위에 얽힌꿈은
주모하를 못뵈이로구나
종소리 염불소리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류금류 열두담이
 굽이굽이 흘렀으니
 선경인들 극락인들
 만불상이 더욱좋다
 기암괴석 설경속에
 금강수가 샘솟고
 구름천리 몸에감고
 세사들이 보듬어서
 바름끼어 올라가니
 비루봉이 장한쿠나
 만학천봉 층암절벽
 머리속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세류직하 삼천척은
 이를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백구
 쌍거쌍래 한가롭다
 동래방장 영주산을
 구름밖에 솟았구나
 금강아 말물어보자
 고금사를 다예일러라
 영웅호걸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다녀갔노
 물음에 대답은 없어도
 나는응당 알리로다

— 제보자 : 전재봉 (남, 77세, 본동 강남노인정, 1993. 5. 1)

• 죽지사(일명 건곤가)

건곤이 불로 월장재하니
적막강산이 금백년이로구나
어히요 이히요 이히야여
일념정념은 극락남무하
아아아야허 아아마미히 사흐앙이
낙동강상 선주편하니
취적유성이 낙유풍이로구나

- 제보자 : 전재봉 (남. 77세. 본동 강남노인정. 1993. 5. 1)

• 뱃노래

배띠워라 배띠워라
만경창파에 배띠워라
달뜨자 배떠나니
인자가면 언제나와요
오마는한이나 일러주오
모란봉이 변하여
대동강수가 될지라도
너와나와 변치마라
상생락이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용문화강 음신단허니
북방소식을 뉘전허리
별근대 내글한장
남계신곳에 전코가오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권학가

어덜떨떨 궁그러가는
검은기차야
산을넘고 물을넘고

잘도간다야

공부힘쓰소 공부힘쓰소

일석으로 돌아지게 공부힘쓰소

- 제보자 : 안수남 (여. 86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우민가

고초고초 깊은밤에
하늘은높고 닭밝은데
동수보난 장양리는
일천동서 한곡조로
월하에다 슬피부니
그곡조에 하였으되
팔천제자 들어보소
대궐같은 저집을랑
변질같이 비어두고
태상같은 부모두고
반달같은 처자두고
검사장에 무슨일고
팔은천장 무슨일고
너의부모 생각하니
곧은허리 굽어지고
검은머리 백발되야
오늘올까 내일올까
이마위에 손을얹고
기다리고 바래다가
만봉설움 되었고나
주문잡고 우는형용
차마어찌 볼수없고
너의처자 생각하니
월태항용 좋은얼굴
이별하기 아까와서

인제가마 언제오요
명년추절 돌아오소
떠나올때 배떠나기
허연간에 무성하여
동버선을 옆에끼고
주야장천 공부한다
공부하던 너의아들
엄마하고 하는말이
우리부친 어디가고
이때까진 아니와요
이렇다시 하는말이
굽이굽이 맺힌설움
애척간장 다녹는다
집떠난지 십여년에
일자식들 동절없다
뒷동산에 만조숙녀
명년삼월 되건마는
뒷동산 만족수로
하는장부 막아낼꼬
부모형제 지내간들
어느누가 괴별하나
이소리들은 팔천제자
들어보니 우는줄도 모르오나
자연히 눈물난다
춘풍같이 흩어지니
대왕님은 할일없어
우민이로 불렀단다
산도좋고 물도좋다
안양열녀 죽은곳에
무삼선녀 새로났다
눈썹은 반달이요
머리는 유화같고

만고일색 고운얼굴
주민이가 새로났다
우민이가 새로났다
만고일색 고운얼굴
우민이가 새로났다
우민이가 오색단장
곱게꾸며
우민일랑 영에달고
소상강 기러기로
한쪽끝에 끼어들고
어여집다 하는소리
어느누가 알아실고
우민이야 우민이야
무슨잠을 그리자나
이별주나 먹어보세
우민이 거동보소
자던잠을 놀래개서
이별주가 웬말이요
대왕님은 천자되고
이내몸은 창포되야
구궐궁궐 좋은집에
부귀영화 사졌더니
오늘이별 웬말이요
천상옥중 깎아내어
옥같이 마주앉아
희희낙락 하잖더니
오만경대 앞에놓고
분성정 하는양은
이내얼굴 곱게꾸며
아방궁녀 불탈적에
임과같이 배를타고
추천으로 귀경가고

원왕침 빈침끝에
오색실을 수놓키나
동지선달 화초방에
임과들이 자짚더니
오늘이별 웬말이요
대왕님의 하신말씀
우민이야 춤을춰라
우민이야 노래하라
막중아문 다시보자
우민이 백옥같은 잔의술을
대왕님을 드릴까요
그술받아 손에들고
맛있게 마신후에
심신이 산란하다
우민이야 우지마라
아니울음 한마디에
철수대장 우곡간장 다녹는다
우지마고 말로해라
유정장가 같것같으면
부귀영화 살터인데
부귀영화 사터래도
구정을랑 잊지마오
대왕님도 웬말이요
충신은 역사 임금이요
열녀는 불경이부론데
금석같이 굳은절개
비바람에 꺾어질까
나는이제 죽을라요
대왕님네 깔배주소
대왕님 하신말이
추추만세 히란정을
내손으로 일귀증세

화초장검 드는칼로
우면이를 주었다
두손으로 칼을받아
칼을물고 잊어지니
꽃같은 붉은피가
입을쫓아 나고보니
안홀불견 간데없다
고금열녀 많다해도
저런절개 또있든가
이일경 첫불쑤라
대왕님의 분한마음
장창대검 둘러매고
느린길 좁은길로
쓴살같이 달려난다
홀연히 생각났다
홍문연 높은잔치
번지에만 알았다면
이런일이 없을건데
서란옥은 물이되고
깨어나진 거울이라
다시닫지 못하나니
이거로써 끝이로세

- 제보자 : 이인기 (여. 74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금강산구경

강원도 금강산
천하명산 들어가자
천하명산 구경가자
동해끼고 솟은산이
일만이천 봉오리가
구름같이 버렸으니

금강산이 분명코나
장안사를 구경하고
명경대에 다리쉬어
만군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는 어디를갔나
바위위에 얽힌꿈은
귀초하는 눈뿐이로다
종소리 염불소리는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루금루 열두당은
굽이굽이도 흘렸으니
선경이든 금악이든
만불사 은덕좋다
강비석 절경속에
금강수 샘솟고
구름줄기 눈에감고
세사다리 더듬어서
바랑지고 올라가니
만학천봉 층암절벽
머리숙여 굽어 보니
구만장천 걸린폭포는
은하수를 기울인듯
봉래방장 영주산은
구름밖에 솟았구나
비류직하 삼천척은
이를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을놓고 앉어보니
창가에 나는백구는
쌍거쌍래가 한가롭다
금강아 말물어보자
금강아 여있다 말물어라

영웅호걸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지나갔노
물음에 대답은 없어도
나는응당 알겠노라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베틀가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아
영랑간에 베틀을 놓세
낮에 짜면은 일광단
밤에 짜면은 야광단
일광단야광단 합해서
우리님의 와이사쓰나
기워볼까
밤에 짜면은 야광단
일광단야광단 합해서
우리 님의 와이사쓰나
지워볼까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토끼화상

화상을 그린다
토끼화상을 그린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렀오
일적선봉 봉황대
봉그리던 환쟁이
남국천자 능연대
일월그리던 환쟁이
동정유라 청파년에

금수주파에 거북연적
어중아 불러 먹 갈어라
양수화플 부득부어
앵노수라 간지상에
이리저리로 그릴적에
천하명산 성지간에
경기보던 눈그리고
앵무공작 지저울제
소래들던 귀그리고
만화방창 화림중에
냄새맡던 코그리고
동네방네 운무중에
소래들던 귀그리고
허늘허늘이 배그리고
동지선달 설한풍에
방풍허던 털그리고
우편은 청산이요
좌편은 녹수로다
녹수청산 깊은골에
계수나무 그늘아래로
펼펼뛰던 발그리고
이리저리로 다 그랬습니다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자장가

자장자장 얘기야
우리 얘기 잘도잔다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는 효자동이
동기간에 우애동이
집안간이 화목동이

동네간에 귀염둥이
둥둥둥 내사랑아
우리애기 잘도잔다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어랑타령

활연춘생 만화방촌
해는좋다고 벗님네야
옛날활량은 활을잘쏘고
지금의활량은 돈잘쓴다
활을잘쏘아야 활량이지
돈잘쓰는게 활량이드냐
뉘라서 장사라드냐
이별이들어서 장사라드냐
명향도 눈물을짓고
항우라도 울었건마는
아마도 장부야
일로무삼 때는좋다
벗님네야 삼수갑산
머루나다래는 얼그럭덜그럭지는데
나는언제 입을만나
얼그럭덜그럭 지느냐
어랑어랑어허라 어느난다 짱어라
모두다 내사랑아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로인정, 1993. 4. 3)

· 쌈씨는 노래

자롱아 말놓고
창쏘지 마라
만민이창졸이 다늘랜다